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2026. 03. 30 | IBKS Research

# Insight Monthly 4 2026



- |           |       |        |      |        |    |
|-----------|-------|--------|------|--------|----|
| 인터넷/게임/AI | 화학/정유 | 유통·식자재 | 미디어  | 엔터     | 레저 |
| 유틸리티      | 음식료   | 자동차    | 2차전지 | 건설/부동산 | 조선 |
| 제약/바이오    |       |        |      |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부문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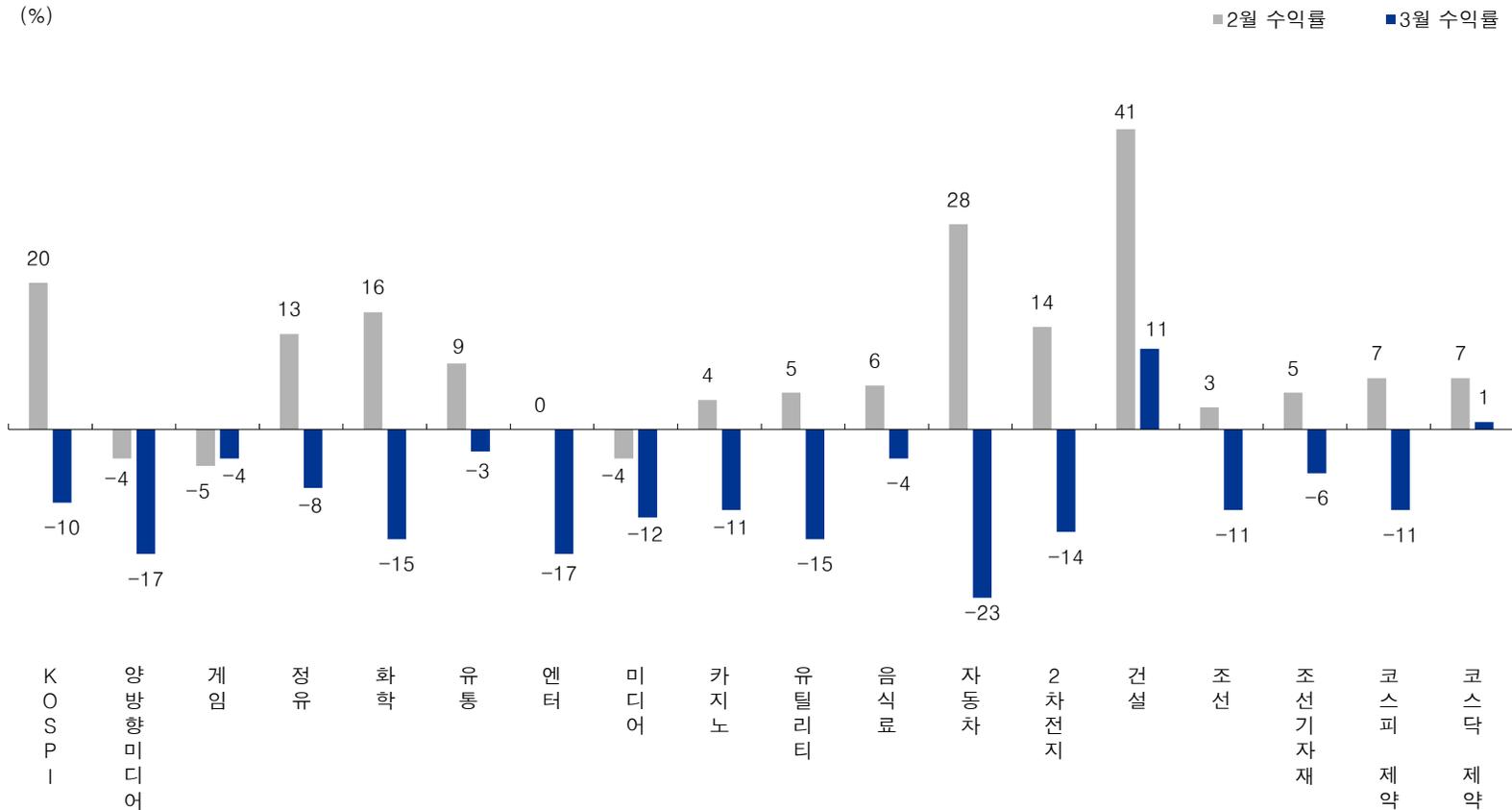
# 업종별 전망

업종	기상도			Top Picks
	3월	4월	5월	
AI/인터넷/게임				카카오, 엔씨소프트
화학/정유				S-Oil, 롯데정밀화학
유통/식자재				GS피앤엘, CJ프레시웨이
엔터				하이브, 디어유
미디어				스튜디오드래곤
레저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 업종별 전망

업종	기상도			Top Picks
	3월	4월	5월	
유틸리티				두산에너지빌리티, 효성중공업
음식료				삼양식품, 오리온
자동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건설/부동산				현대건설, 한미글로벌
조선				HJ중공업, 동성화인텍
제약/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 업종별 수익률



주: 2월 수익률은 2.1~2.28, 3월 수익률은 3.1~3.25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업종별**

**COMMEN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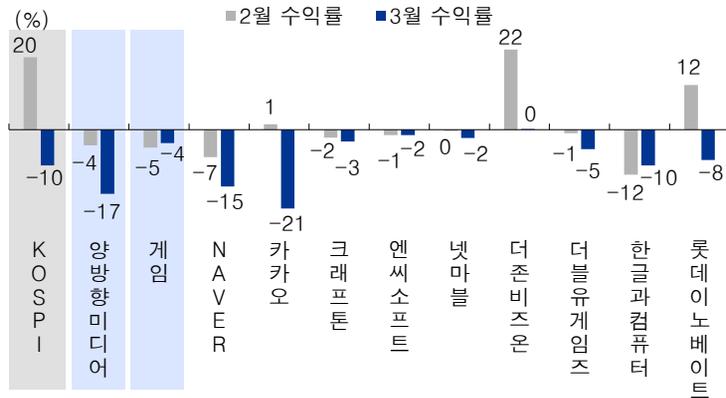


# AI/인터넷/게임

3월

## 성과 분석

- 3월 기준 양방향 미디어 지수는 -17.3% 기록하며 코스피 대비 -7.7%P 하회했고, 게임 지수는 -3.7%를 기록하여 코스피 대비 +6.0%P 상회함
- 양방향 미디어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경기 위축 우려 및 글로벌 AI 버블 우려로 약세
- 게임 업종은 경기애 둔감한 산업 특성으로 경기 방어주로 기능하며 지수 대비 아웃퍼폼



주: 2월 수익률은 2.1~2.28, 3월 수익률은 3.1~3.25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3월

## 주요 이슈 & 키워드

### 펠어비스 '붉은사막', 3월 20일 정식 출시

- 7년간 개발한 펠어비스의 '붉은사막'이 3월 20일 PC, PS5, XSX으로 정식 출시
- 출시 전 평론가 평점은 78점(메타크리틱, 19일 기준)을 기록하며 기대에 못미쳤으나, 출시 후 유저 평가는 지속 개선 중
- 판매량은 출시 첫 날 200만장을 기록하였고, 스팀 최고 동시접속자 수가 약 24만을 기록하며 상업적으로 흥행

### 붉은 사막 인게임 장면



자료: 펠어비스, IBK투자증권

# AI/인터넷/게임

4월

전망 및 투자전략

3월



4월



5월



- 미국 내 AI혁신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및 SaaS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됨. 국내 인터넷 플랫폼 기업 역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됨
- 이란 전쟁이 단기 종결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강화되고 있으며 광고 경기 역시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광고 매출 비중이 높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나타남
- 게임사는 펠어비스, 넷마블, 데브시스터즈 등의 신작 게임이 출시되면서 기대감이 상승함
- Top picks는 카카오와 엔씨소프트를 제시함

4월

Top Picks

## 카카오

- 특비즈 광고는 데이터 기반의 개인화 타겟팅과 오픈채팅 광고 확대를 통해 견고한 성장세를 기록함
- 신규 AI 기능인 '카나나 인 톡'은 별도 앱 설치 없이 기존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자체 경량 모델을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방식으로 구현함
- 구글과의 협력을 거쳐 상반기 내 주요 파트너사들의 본격적인 합류가 예상됨

## 엔씨소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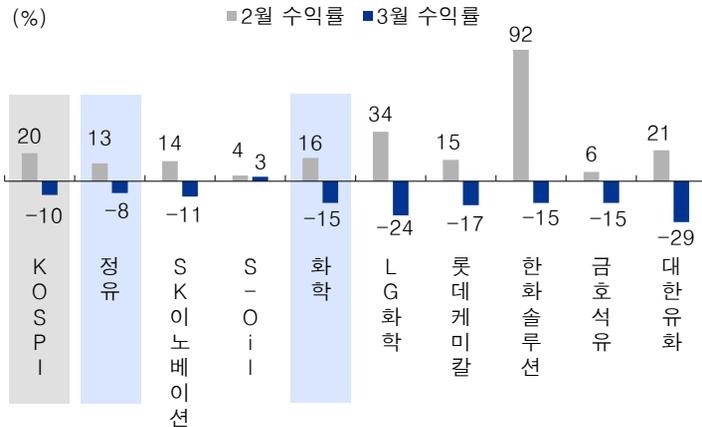
- 독일 저스트플레이 지분 70%를 인수하며 모바일 캐주얼 게임 플랫폼을 확보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을 완성함
- 기존에 확보한 리후후, 스프링컴즈와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2026년 비유기적 성장을 견인할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됨
- 2030년 매출 5조 원 및 ROE 15% 달성을 목표

# 화학/정유

3월

## 성과 분석

- 3월 정유 업종지수는 -8.3% 하락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1.3%p 상회. 유가 급등으로 재고관련이익 증가 전망 및 등/경유 크랙 증가에 기인
- 3월 화학 업종지수는 -15.3% 하락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5.6%p 하회. 원재료 가격 급등 및 가동률 하락에 따른 고정비 증가 전망



주: 2월 수익률은 2.1~2.28, 3월 수익률은 3.1~3.25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3월

## 주요 이슈 & 키워드

### 중동 에너지 자산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 이스라엘의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및 정제시설 타격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는 사우디/UAE/카타르의 핵심 에너지 시설을 보복 타격 대상으로 지목. 실제 공급망 훼손 시 역내/외 수급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전망
- 또한 카타르 LNG 설비 손상으로 카타르는 한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LNG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 역내/외 가스 가격 반등세로 전환

### 한화솔루션,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

- 한화솔루션, 보통주 7,200만주를 신규 발행해 약 2.4조원을 조달할 계획. 이는 기존 발행 주식수 대비 약 42% 수준의 적지 않은 규모
- 선제적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주식 발행으로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에 부담 전망

# 화학/정유

4월

## 전망 및 투자전략

3월



4월



5월



- 4월 화학 업종은 유가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유가/가스/전력/해상운임/보험료 증가에 따른 자동차/건설/내구소비재/포장재 등 전방 수요처의 수요 둔화 등으로 전반적인 가동률 축소 전망
- 4월 정유 업종은 등/경유 스프레드 급등에 따른 정제마진 호조세를 지속할 전망. 다만 호르무즈 해협 이슈가 지속된다면 원유 조달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음

4월

## Top Picks

### S-Oil

- 총 9.3조원 규모의 사한 프로젝트는 올해 6월 기계적 완공 및 하반기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안정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음.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로 TC2C 공정을 도입하여 기존 공정 대비 화학 원료 수율을 3~4배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20~30% 절감할 것으로 예상. 또한 기존 정유시설의 증질유 및 부산물을 보조 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원가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

### 롯데정밀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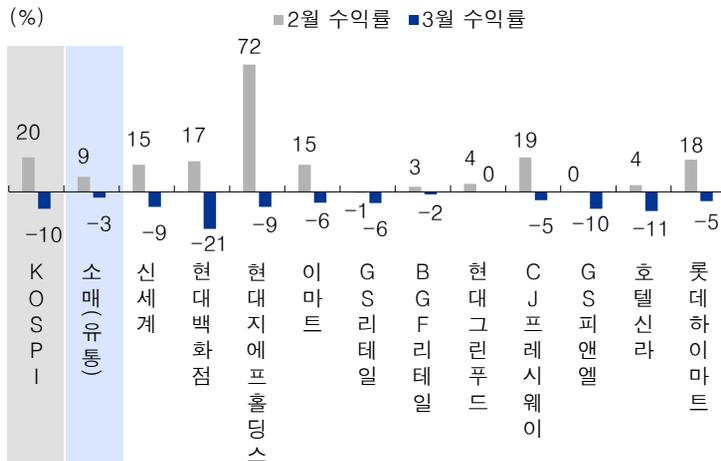
- 호르무즈 해협 이슈로 인한 가스 가격 상승으로 암모니아 가격 급등세 기록. 동사의 암모니아 사업의 판가 인상에 기여할 전망
-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보유 상품/현금을 고려한 업종 내 차별적인 재무 안정성 지속 전망

# 유통 · 식자재

3월

성과 분석

- 3월 유통 업종 지수는 -3.3% 하락했으며 코스피 수익률을 +6.3%p 상회
- 미국-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되며, 3월 주가는 약세를 보였으나 업종 전체적으로는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함



주: 2월 수익률은 2.1~2.28, 3월 수익률은 3.1~3.25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3월

주요 이슈 & 키워드

## 1월 방한 외국인 YoY +13.3% 증가

- 2026년 1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26.6만명으로, 전년동기 111.7만명 대비 +13.3% 증가
- 국가별로는 중국 41.9만명(YoY +14.9%, 비중 33.1%), 일본 22.5만명(YoY +29.0%, 비중 17.8%), 대만 16.7만명(YoY +23.1%, 비중 13.2%) 등
- 문체부에 따르면, 2~3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요는 전년대비 20% 이상 상승하며, 1분기 관광객 호조가 예상됨

## 2월 백화점 고성장세 지속

- 2월 설 연휴 시점차이가 존재하나 백화점은 1월 +13.4%에 이어, 2월 +25.6% 성장하며, 고성장세 지속
- 상품군별로는 기존 성장을 주도했던 명품이 +22.6%로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었으나, 명품 이외에도 의류 등 내구재 매출도 성장세로 전환(여성 캐주얼 +25.1%, 남성 의류 +19.8% 등), 뿐만 아니라 식품도 +65.0%로 모든 상품군에서 고성장세 지속되며 소비 양극화 지속

# 유통 · 식자재

4월

## 전망 및 투자전략

3월



4월



5월



- 백화점: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 상승에 따른 명품, 주얼리 판매 증가 및 의류매출 회복세 뚜렷, 이에 따라 마진 믹스 효과 개선 기대. 동 추세는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
- 대형마트: 지난해 기저효과 및 홈플러스 주요 점포 폐점에 따른 효과 2월부터 점진적으로 반영
- 편의점: 지난해 낮은 기저에 따른 1분기 기존점 성장률 회복 기조 유지 전망, 점포 폐점으로 인한 고정비 부담 완화로 수익성 개선도 기대
- 호텔: 중·일 갈등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 성장세 본격화, 2월 명절연휴 및 3월 BTS 공연에 따른 추가 성장세도 기대

4월

## Top Picks

### GS피앤엘

- 2026년 전 사이트 실적 개선 기대. 1) 방한 외국인 관광객 2월 기점 확대(중국인 수요 급증), 2) 웨스틴 파르나스 수익성 회복, 3) 나인트리 ADR 5~7% 성장 가능, 4) 제주도 내국인 입도객 회복에 따른 제주도 영업실적 확대
- 특히, 2025년에는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리뉴얼로 인해 -300억원에 가까운 영업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2026년 온기로 운영이 반영되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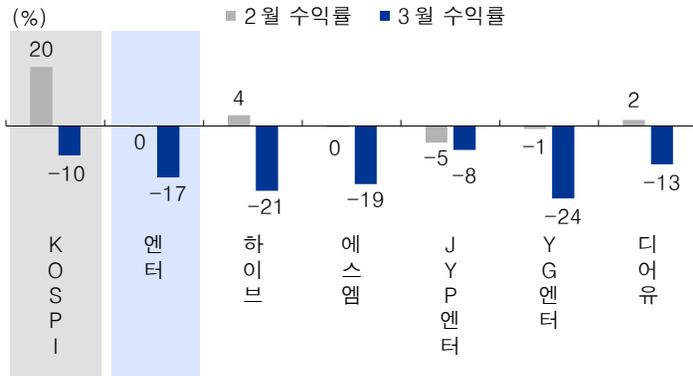
### CJ프레시웨이

- 2026년 매출액 38,577억원(YoY +10.8%), 영업이익 1,242억원(YoY +22.3%)로 영업이익 20% 이상 성장 전망
- 특히, 26년 온라인 매출액 2,000억 원을 상회하며 전년대비 2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 본격적인 이익 기여는 27년 하반기 기대
- 26년 예상 EPS 7,254원 대비 현 주가는 PER 4.4배 수준으로 극심한 저평가 상태로 판단

3월

## 성과 분석

- 3월 엔터 업종 커버리지 평균 수익률은 -17.0%를 기록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7.4%p 하회
- 3월 전반적인 증시 조정으로 엔터 업종도 전반적인 수급 이탈에 따른 수익률 부진
- BTS 컴백앨범 발매, 글로벌 쇼케이스 등의 행사가 있었으나 수급 이탈 영향을 상쇄하기엔 부족했던 것으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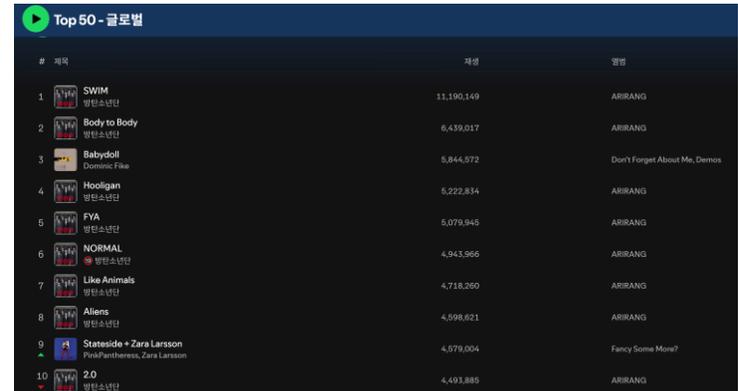
주: 2월 수익률은 2.1~2.28, 3월 수익률은 3.1~3.25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3월

## 주요 이슈 & 키워드

### BTS 앨범 발매, 글로벌 쇼케이스 개최

- BTS는 3/20 정규 5집으로 컴백. 초동 판매량 400만장 무난히 상회하며 사상최대치 기록. 타이틀 곡 SWIM Spotify, 멜론차트 1위 기록, Top 10안에 다수의 수록곡 차트인
- 컴백 다음날 3/21 광화문에서 글로벌 쇼케이스도 성공적으로 진행. 공연은 Netflix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
- 광화문 오프라인 모객은 약 10만명(하이브 추산) 수준, Netflix를 통한 실시간 시청자 수는 1,800만명 규모로 추정



자료: Spotify, IBK투자증권

4월

## 전망 및 투자전략

3월



4월



5월



- 4월 엔터업종 주가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
- NiziU(4/1, JYP), 키플립(4/6, JYP), TXT(4/13, HYBE), 엑디즈(4/17, JYP), NCT WISH(4/20, SM), &TEAM(4/21, HYBE), 아일릿(4/30, HYBE), TWS(HYBE), 르세라핌(HYBE) 등 다수의 아티스트 컴백 모멘텀 기대
- 4/9 고양 스타디움에서 시작하는 BTS 월드투어 등의 모멘텀도 하이브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
- 최근 주가 조정으로 엔터주 12M Fwd P/E는 하이브 30.5배, 에스엠 14.3배, JYP 16.9배, 와이지엔터 16.2배, 디어유 17.4배로 밴드 하단에 위치
- 최선호주 하이브, 차선호주 디어유 유지

4월

## Top Picks

### 하이브

- 동사의 2026년 실적은 매출액 4조 6,394억원(+75.1% YoY), 영업이익 5,806억원(+1,063.7% YoY) 전망. BTS 컴백에 따른 앨범/공연/MD 등 전 부문 실적 개선 영향
- BTS는 26~27년 매출액 2.9조원, 영업이익 5,306억원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며, 26년 매출액 2.3조원, 영업이익 4,214억원 반영 예상

### 디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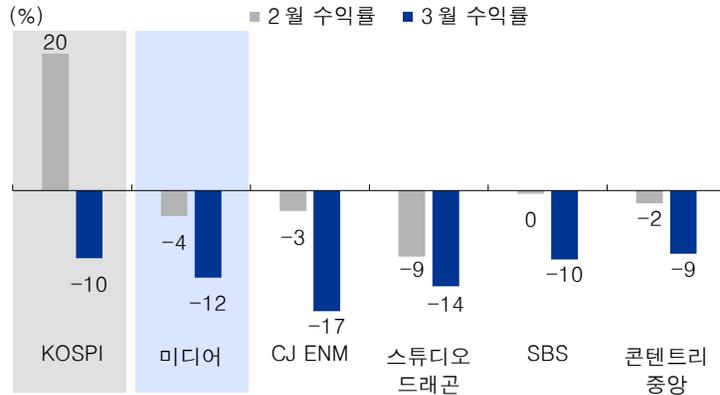
- 동사 영업이익은 2026년 534억원(+70.0% YoY), 2027년 829억원(+55.2% YoY) 전망. 1) 구독료 인상 효과 온기 반영(25년 7월~), 2) 중국과 일본 로열티 수익 확대, 3) PG 결제 비중 확대(25년말 16%→26년말 30%→27년말 35% 가정)에 따른 지급수수료 절감이 실적 개선의 주 요인

# 미디어

3월

## 성과 분석

- 3월 미디어 업종 커버리지 평균 수익률은 -12.4%를 기록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2.8%p 하회
- 스튜디오드래곤 -13.7%, CJ ENM -17.2%, SBS -9.8%, 콘텐츠리중앙 -9.0% 등 커버리지 종목 대부분 부진한 주가 수익률 시현
- 업종 전반적인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전반적인 시장 조정기에 따른 수급 이탈 영향으로 해석



주: 2월 수익률은 2.1~2.28, 3월 수익률은 3.1~3.25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IBK투자증권

3월

## 주요 이슈 & 키워드

### Netflix, Warner Bros. 인수 포기

- 지난해 12월 Warner Bros.의 스트리밍과 스튜디오 사업을 주당 27.75달러(총 827억달러, 118조원)에 인수계약을 체결한 Netflix는 지난 2/26 Warner Bros. 인수를 철회
- Netflix의 이 같은 결정은 Paramount Skydance가 주당 31달러(총 1,110억 달러, 약 158조원)의 인수안을 제출하고, Warner Bros. 이사회가 해당 인수안이 Netflix의 기존 제안 보다 낮다고 판단한 직후에 이루어졌음
- Netflix는“우리는 워너 브라더스의 상징적인 브랜드들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 거래는 언제까지 적절한 가격에서 이루어진다는 전제였지, 어떤 가격에라도 꼭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
- 이번 계약 파기에 따라 Netflix는 Warner Bros.로부터 28억 달러(약 4조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받을 예정이며, 위약금은 Paramount 측이 Warner Bros.에 지급할 계획

# 미디어

4월

## 전망 및 투자전략

3월



4월



5월



- 4월 미디어 업종 업황은 횡보 전망
- 스튜디오드래곤, 콘텐츠리중앙 등 제작사의 경우 수목드라마 편성 성과에 주목
- 수목드라마의 좋은 성과로 이후 추가편성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추정치 상향 요인
- SBS는 1Q26에도 방송광고 업황 부진이 이어지며, 자회사 스튜디오S의 선판매 효과 상쇄 예상
- CJ ENM은 방송광고 업황 부진이 지속되겠지만, 영화/드라마, 음악, 커머스 부문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며 점진적으로 실적 및 투자심리 개선 예상
- 최선호주 스튜디오드래곤 유지

4월

## Top Pic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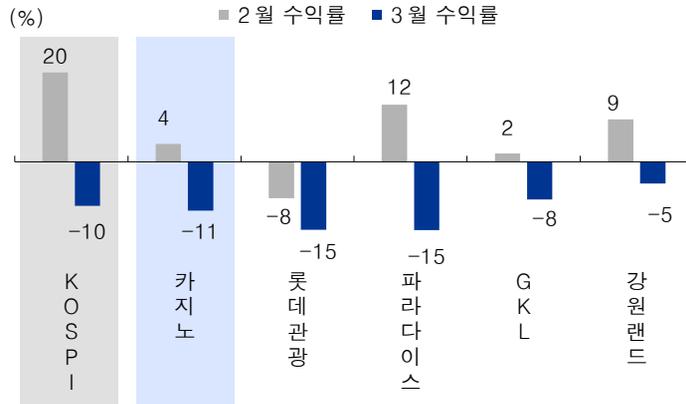
### 스튜디오드래곤

- 동사의 2026년 실적 매출액 6,626억원(+24.8% YoY), 영업이익 561억원(+84.8% YoY, OPM 8.5%) 전망.
- 2026년 제작편수는 25편으로 지상파 편성, tvN 수목드라마 재개로 최소 전년대비 6편 이상 확대 예상, 글로벌 OTT 및 티빙 브랜드관 판매 증가로 수익성 개선 기대
- 올해 텐트폴 작품은 <유미의 세포들3>, <천천히, 강렬하게>, <100일의 거짓말> 등, 미국에서 논의중인 다수의 프로젝트 중 약 3편이 시리즈오더 가시권으로 추정
- 추가로 중국과 문화교류 관련 협의가 연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일부 시장이 개방된다면, 구작 IP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동사에 직수혜가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

3월

## 성과 분석

- 3월 카지노 업종 커버리지 평균 수익률은 -10.7%를 기록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1.1%p 하회
- 롯데관광개발 -14.9%, 파라다이스 -14.9%, GKL -8.3%, 강원랜드 -4.8%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주가수익률을 기록
- 2월 카지노 월별 실적이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데다, 전반적인 시장 조정에 따른 수급 이탈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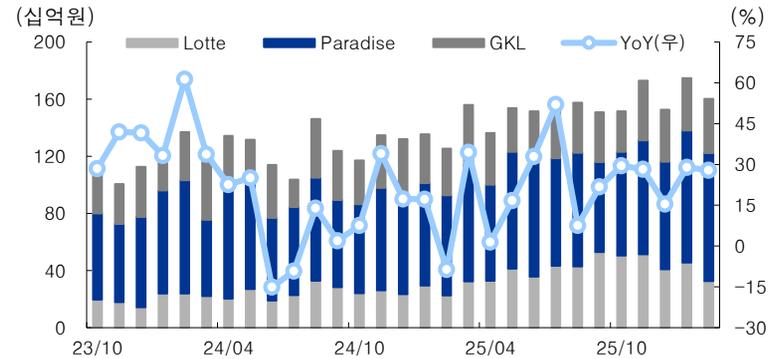
주: 2월 수익률은 2.1~2.28, 3월 수익률은 3.1~3.25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3월

## 주요 이슈 & 키워드

### 2월 카지노 3사 매출 1,602억원(+27.9% YoY)

- 2월 카지노 3사 합산 매출 1,602억원(+27.9% YoY, -8.3% MoM), 드랍액 0.97조원(+3.9% YoY, -17.3% MoM)
- 회사별 매출액은 롯데관광개발 326억원(+44.3% YoY), 파라다이스 895억원(+27.5% YoY), GKL 381억원(+17.3% YoY)
- 2월 카지노 3사 실적은 전반적으로 부진. 마카오 2월 GGR 역시 206억 MOP(+4.5% YoY, -8.9% MoM)으로 전월대비 감소. 중국 정부의 춘절 전후 카지노 방문 자제 권고로 아시아 카지노 시장내 중국 하이롤러 모객 둔화 영향



자료: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GKL, IBK투자증권

# 레저

4월

## 전망 및 투자전략

3월



4월



5월



- 4월 카지노 업황 전망은 긍정적
- 4월부터 본격적인 성수기에 진입하며 중국 VIP 회복과 Mass 고객의 뚜렷한 성장세 지속 될 것으로 전망
- 3월 제주도 외국인 입도객 추정치는 18.5만명(+26.9% YoY, +14.6% MoM)으로 뚜렷한 개선세가 확인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
- 4월초 발표되는 카지노 3사의 3월 지표들은 MoM 반등세가 확인되며 주가 상승 견인 전망
- 업종 최선호주 롯데관광개발 유지

4월

## Top Picks

### 롯데관광개발

- 동사의 2026년 영업이익 2,112억원(+42.9% YoY) 전망. 1) 한일령 반사수혜, 2) 호텔객실 콤프 확대('25년 800객실 → '26년 1,000객실), 3) 테이블 가동률 상승('25년 130개 내외 → '26년 167개)에 따른 실적 레버리지 효과가 연중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26년 하반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기간 도래로 차입금 리파이낸싱 가능성이 있는 점도 긍정적

### 파라다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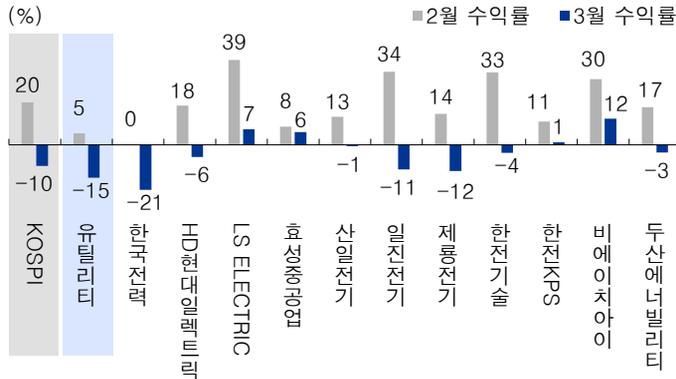
- 동사의 2026년 영업이익 2,160억원(+38.1% YoY, OPM 16.6%)으로 전망. 한일령 반사수혜와, 3월 인천 하얏트 오픈 효과에 따른 드랍액 성장(+12.5% YoY)이 실적개선을 견인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유틸리티

3월

## 성과 분석

- 3월 유틸리티 업종은 -15.0% 하락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5.4%p 하회함
- 한국전력 주가가 21% 큰 폭으로 하락함. 유가 및 LNG 가격 상승으로 연료비 부담이 확대되면서 수익성 악화 우려가 부각됐기 때문
- 상대적으로 LS ELECTRIC(+7%)과 효성중공업(+6%)은 견조한 주가흐름을 나타냈으며, 비에이치아이(+12%)도 본업인 배열회수보일러 수주 확대 기대감과 원전 모멘텀이 이어지며 양호했음



주: 2월 수익률은 2.1~2.28, 3월 수익률은 3.1~3.25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3월

## 주요 이슈 & 키워드

### 26년 2분기 전기요금 동결

- 한국전력은 26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5.0원/kWh로 동결한다고 발표함. 가정용 12분기, 산업용은 6분기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감
- 최근 3개월간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 시 필요한 조정단가는 -11.2원/kWh이나,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와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상한선 유지 결정함

### 해상풍력법 시행령 시행

-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6일부터 시행됨. 기존 민간 주도였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정부는 연내 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할 계획이며, 예비지구의 경제성 등을 검토 후 발전지구로 확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발전지구 사업자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최소화해 착공까지 기간도 약 3~4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됨

# 유틸리티

4월

## 전망 및 투자전략

3월



4월



5월



- 3월 20일 누계(3/1~3/20) 초고압 변압기(10,000kVA 초과) 수출액이 9,908.7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3월 전체 수출액 7,420.7만달러를 이미 33.5% 초과했음
-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도 효성중공업, LS ELECTRIC 등 초고압변압기 업체들은 구조적 성장 기대를 반영하며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4월에도 초고압변압기 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함
- 더불어 미국의 원전 확대 정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3월 초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차세대 원자로 중 최초로 TerraPower의 Natrium 원자로 건설을 승인함. 한·미 원자력 협력 기대감이 고조되며 국내 원전 밸류체인 전반의 수혜 가능성이 부각되는 한편, 원전 주기기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4월

## Top Picks

### 두산에너빌리티

- 지난해 체코 원전 프로젝트 관련 주기기 수주(약 5.6조원)를 포함해 원자력 수주 잔고는 11.2조원(+90% YoY)으로 크게 확대됨. 글로벌 원전 확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평균 약 4.9조원 규모의 원전 수주가 지속, 2030년 원전 관련 수주 잔고는 약 27.2조원(26~30년 CAGR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국내 복합화력발전 전환 계획과 북미를 중심으로 한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가스터빈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주목됨

### 효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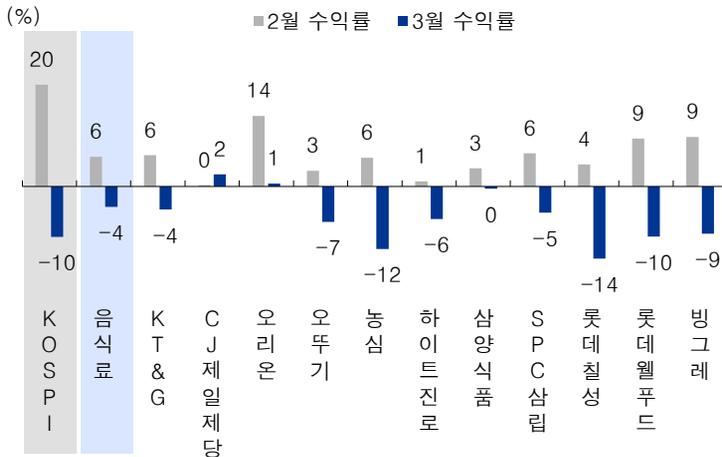
- 올해 연결 매출액은 7조 2,532억원(+21.5% YoY), 영업이익은 1조 1,377억원(+52.3% YoY)으로 전망됨. 관세 보전 효과와 고마진 수주 매출화를 감안하면 중공업 부문 영업이익률이 올해 20%를 상회할 전망. 미국의 765kV 극초고압 전력망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현지 유일의 765kV 변압기 생산 업체로 수주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 음식료

3월

## 성과 분석

- 3월 음식료 업종은 -3.9%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주 선호 심리가 유입되며 코스피 수익률을 5.7%p 상회함
- CJ제일제당이 2% 상승했고 삼양식품이 보합으로 비교적 견조했던 반면, 롯데칠성(-14%)과 농심(-12%), 롯데웰푸드(-10%) 등 대부분 종목이 하락함



주: 2월 수익률은 2.1~2.28, 3월 수익률은 3.1~3.25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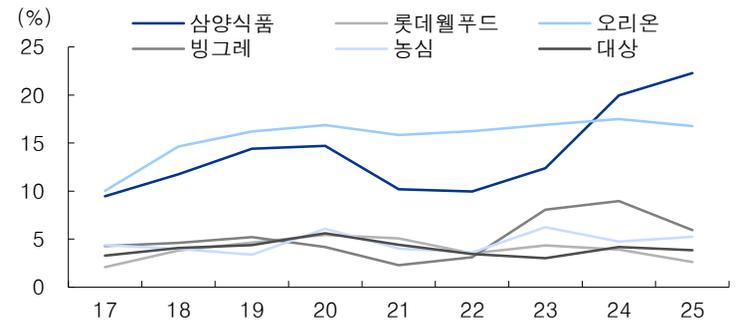
3월

## 주요 이슈 & 키워드

### 라면, 스낵 등 주요 음식료 가격 인하

-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와 맞물려 식용유 업체 6곳, 라면 업체 4곳 및 제과 업체들이 일부 제품 가격 인하를 결정함
- 밀가루, 설탕 등 원재료 가격이 일부 안정화된 가운데, 업체별 가격 인하 제품군이 대체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실적측면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 다만 2023년부터 정부 차원의 제품 가격에 대한 개입이 잦아지는 점은 업종 전반의 투심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

### 주요 음식료 기업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 음식료

4월

## 전망 및 투자전략

3월



4월



5월



- 3월 음식료 업종은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건조한 흐름을 보임. 시장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방어주 성격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쟁 장기화로 증시 약세가 이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매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실제로 2001년 이후 연간 기준 시장 하락 국면에서 음식료 업종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하회한 사례는 없었음
- 반대로 미국과 이란 간 휴전 및 분쟁 종결 흐름이 현실화되며 시장이 반등할 경우, 음식료 업종의 상대적 성과는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 업황만 본다면 소비 부진 등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더욱이 제품 가격을 인하한 가운데, 최근 물류비와 일부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원가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임

4월

## Top Picks

### 삼양식품

- 3월 20일 누계(3/1~3/20) 라면 수출액은 114.7백만달러를 기록, 작년 3월 전체 수출액 115.2백만달러의 99.5%에 해당하는 양호한 수출 실적
- 2027년 1월 완공 예정인 중국 자싱공장은 이르면 올해 4분기 중 1~2개 라인이 선행 가동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어 중국 모멘텀의 가시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

### 오리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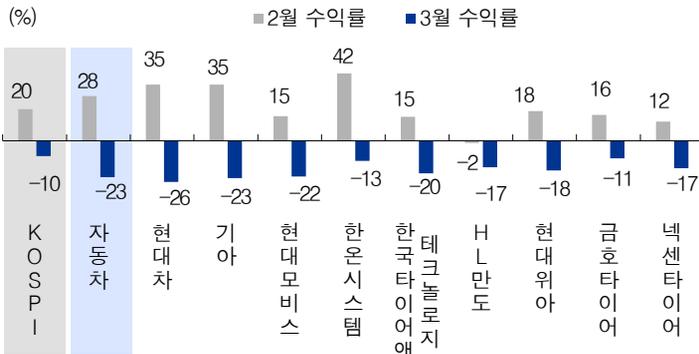
- 오리온 1~2월 국내외 법인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435억원(+18.5% YoY), 1,192억원(+33.2% YoY)을 기록. 중국 법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0.0%, 59.9% 증가하며 전사 실적을 견인
- 국내는 단백질쉐이크 등 기능성 제품군 확대, 중국은 봄 시즌 신제품과 성장 채널 전용 제품 강화, 베트남은 프리미엄 쌀과자 출시로 판매 촉진이 예상됨. 러시아 역시 파이 라인 증설 효과로 고성장세가 이어질 전망

# 자동차

3월

## 성과 분석

- 3월 자동차 업종은 -22.6% 하락. 코스피 수익률 대비 -12.9%p 하회
- 25년 10월 간부치킨, 26년 1월 CES, 3월 GTC까지 4개월 동안 현대차에 대한 긍정적 뉴스플로우 지속 중
- 작년 12월, 1월에 이어 2월까지 주가적으로 좋았던 자동차 업종은 3월에 부진했으나, 모멘텀이 변한 것이 아닌 단순한 조정으로 판단하며 중장기 업사이드가 있다고 판단함



주: 2월 수익률은 2.1~2.28, 3월 수익률은 3.1~3.25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3월

## 주요 이슈 & 키워드

### GTC 2026, NVIDIA와 현대차 자율주행 동맹

- 현대차그룹은 선택 차종의 LV2+부터 Motional의 Lv4 로보택시까지 포괄하는 자율주행 체계를 NVIDIA와 함께 구축하겠다고 발표
- 핵심은 현대차 그룹의 실제 차량 데이터와 NVIDIA의 AI 및 차량 플랫폼을 결합해 자율주행 개발 속도를 높이는 것

### 엔비디아-현대차 자율주행 동맹 선언



자료: NVIDIA, IBK투자증권

# 자동차

4월

## 전망 및 투자전략

3월



4월



5월



- 2025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실적 하향 요인이었던 미국발 자동차 상호관세 이슈는 일단락.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관세 협상을 체결하며, EU, 일본, 한국 모두 15%로 동일해짐
- 관세율 인하로 인해 현대차와 기아 각각 관세 영향이 2.1조원, 1.6조원 감소하여 합산 3.7조원이 감소할 예정
- 현대차의 자율주행은 1) AVP 본부 필두로 자체 내재화 개발과, 2)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R1 자율주행 오픈소스 플랫폼 활용 검토 등 2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
- SDV,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로봇틱스는 각각 독립된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 위에 있는 변화이며 한국 자동차 업종을 보는 시각 역시 경기민감 제조업에서 Physical AI의 초기 상용화 플랫폼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4월

## Top Picks

### 현대차

- 현대차 그룹은 아틀라스를 연 3만대 규모로 양산하고, 구독형 (Raas) 모델을 통해 제조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Physical AI 산업 적용 본격화 전략을 발표
- 새만금 AI 데이터센터 거점화 발표 이후 주목할 포인트는 GPU Blackwell 5만장의 활용 방안
- 웨이모와 아이오닉5 협업, Motional 등 2026년부터 본격화 될 로봇택시 시장 기대감 유효

### 현대모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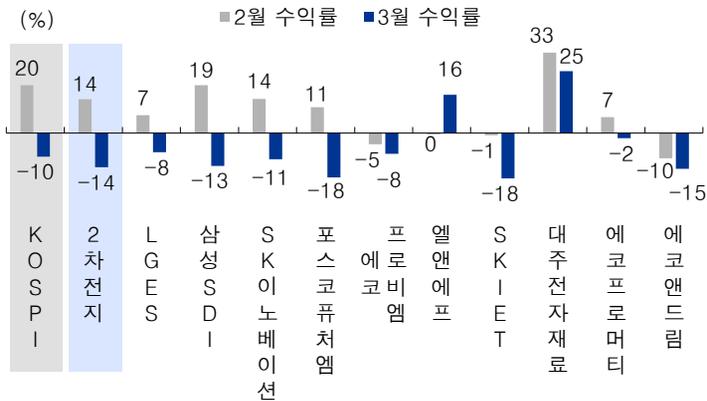
-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핵심 액추에이터 공급, 액추에이터는 휴머노이드 제작 비용의 약 50%를 차지
- 향후 휴머노이드의 가격을 대당 1억원, 공급량을 3만대 (아틀라스 2028년 양산 계획)라고 가정했을 때, 2028년부터 휴머노이드 향으로 발생 가능한 매출액은 연 1.5조원 수준

# 2차전지

3월

## 성과 분석

- 3월 2차전지 업종은 -13.9% 하락. 코스피 수익률 대비 -4.3%p 하회
- 유럽내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 상승, 미국은 4Q25부터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 좋지 않은 업황 환경은 지속
- 인터배터리가 마무리된 이후 2차전지 섹터 내 큰 이벤트는 상반기 내 부재함으로, 이제 1분기 실적의 톤이 중요



주: 2월 수익률은 2.1~2.28, 3월 수익률은 3.1~3.25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3월

## 주요 이슈 & 키워드

### 글로벌 2차전지 Supply Chain Peer Value

- YTD 달러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은 +4.6% 상승, CATL은 +7.4% 상승
- LG에너지솔루션의 EV/EBITDA는 26년 20.0배, 27년 13.8배, 28년 11.5배. CATL 대비 각 년도 프리미엄은 26년 -30.1%, 27년 +42.8%, 28년 +46.2% 수준

업체명	PER (배)			EV/EBITDA (배)		
	26F	27F	28F	26F	27F	28F
<b>배터리 셀</b>						
LG에너지솔루션	243.8	50.1	27.7	20.0	13.8	11.5
삼성SDI	238.3	22.4	17.2	9.7	12.4	9.5
SK이노베이션	76.9	22.5	10.7	11.8	10.8	8.4
CATL	20.0	16.5	13.6	28.6	9.7	7.9
Panasonic	24.3	14.0	11.6	10.0	7.4	6.3
BYD	19.1	15.7	14.5	14.2	5.6	4.1
<b>양극재</b>						
포스코퓨처엠	425.0	166.2	88.9	64.4	42.6	35.2
에코프로비엠	665.5	232.7	102.6	69.1	49.7	41.8
엘앤에프	188.5	62.2	41.1	169.4	27.7	20.9
Umicore	11.7	10.4	9.2	5.9	5.8	5.2
Sumitomo Metal	19.3	13.9	13.5	12.1	14.0	15.3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 3월 25일 기준

# 2차전지

4월

## 전망 및 투자전략

3월



4월



5월



- 2026년 LGES, SDI 등 배터리 기업들의 매출액 가이드는 YoY +15~20% 증가 제시, 양극재 기업들은 YoY +10~20% 증가를 제시함
- 23년 상반기 이후 이어온 부진한 배터리 업황은 26년에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나 올해가 저점임을 확신
- 유럽 IAA(산업 가속화법) 초안이 3월 공개되었으며, 중국을 저격한 법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손해가 전망됨으로 유럽 현지 또는 한국 생산 공장이 있는 소재업체들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
- 문제는 3월 이후 긍정적 뉴스 플로우는 ESS를 제외하면 부재하여 2차전지 섹터에 대한 부정적 뷰 3Q26 까지 유지함 (단기적인 예상)

4월

## Top Picks

### LG에너지솔루션

- 2026년 가이드는 매출액 YoY +15~20% 수준, OPM은 +MS%, CAPEX는 YoY -40% 이상 축소를 제시
- AMPC 수취 물량은 2025년 33GWh였으나, 2026년은 28GWh로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ESS CAPA는 26년 기준 60GWh(중국 7GWh, 한국 1GWh, 미국 49GWh, 폴란드 3GWh)

### 에코프로비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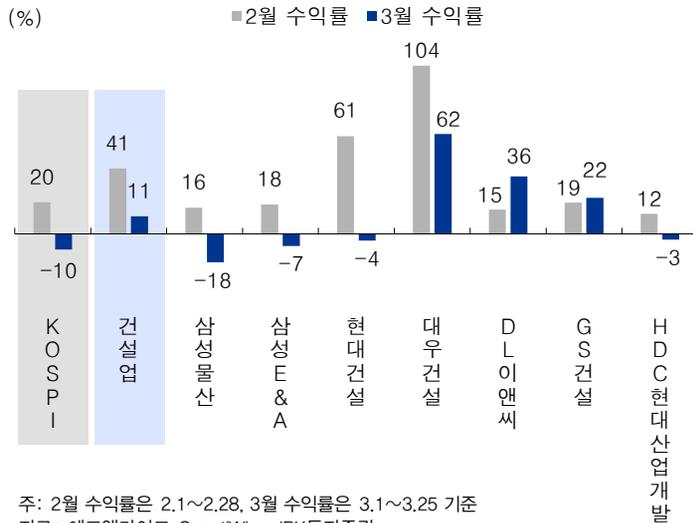
- 양극재 CAPA는 2025년 19만톤에서 2026년 20.8만톤, 2027년 24.4만톤으로 증가할 예정
- 양극재 출하량은 2025년 7.1만톤(출하 비중 36.7%), 2026년 8.8만톤(출하 비중 42.5%), 2027년 13.9만톤(출하 비중 57.3%)으로 예상
- 실적은 좋지 않지만 코스닥 활성화 정책 수혜 기대감 유효

# 건설/부동산

3월

## 성과 분석

- 3월 건설 업종 수익률은 +10.9%를 기록. 코스피 수익률 대비 20.6%p 상회. 종목별로는 대우건설이 +61.8%를 기록하며, 전 월(+104.0%)에 이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음
- DL이앤씨는 +35.6%를 기록하였고, SMR 설계계약 체결과 이란 재건 기대감이 반영되며 큰 폭으로 상승



3월

## 주요 이슈 & 키워드

### 한수원-대우건설 시공비 협상 갈등

- 한수원이 대우건설에 기존 입찰금액 대비 10% 이상, 금액으로는 1조 원 이상 공사비 감액을 요구했다는 보도. 본격 착공 전 세부 협력 계약 단계에서 시공비 조정 문제가 불거지며 일정 지연 우려
- 이번 사안의 본질은 해외 원전 수출 구조의 수익성 배분 문제. 체코 원전은 바라카 이후 두 번째 대형 수출 프로젝트인 만큼, 시작 단계부터 내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향후 추가 수출 신뢰도에도 부담이 될 수 있음
- 이번 갈등에 시사점은 세 가지. 첫째, 한국 원전 수출은 수익성 확보가 더 중요 포인트. 둘째, 국내 원전에서 쓰던 발주·원가 통제 관행을 해외 장기 프로젝트에 그대로 적용하면 갈등이 반복 발생 가능성. 셋째, 장기적으로는 수출 창구 일원화와 기술 자립도 제고를 통해 협상력과 수익 구조를 개선 필요

# 건설/부동산

4월

전망 및 투자전략

3월



4월



5월



- 4월 건설업 주가는 실적 프리뷰와 실적 발표 업데이트가 본격화되는 시점인 만큼, 결국 컨센서스 대비 상회 여부와 하회 여부에 따라 희비가 크게 갈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그동안 업종 주가가 금리, 정책, 해외 수주 기대감 같은 매크로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면, 4월부터는 다시 숫자로 확인되는 실적 체력과 가이드스 신뢰도가 주가를 나누는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음
- 결국, 업종 전체가 같이 가는 장세보다는 실적과 전망치가 확인되는 순서대로 종목별 차별화가 심해지는 흐름의 전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4월

Top Picks

## 현대건설

- 현대건설은 원전을 축으로 한 글로벌 전력 인프라 사이클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건설사로 판단
- 동사는 미국 대형 원전 및 SMR 시장 확대 국면에 대응 가능한 레퍼런스를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UAE 바라카, 국내 원전 시공 경험 다수)

## 한미글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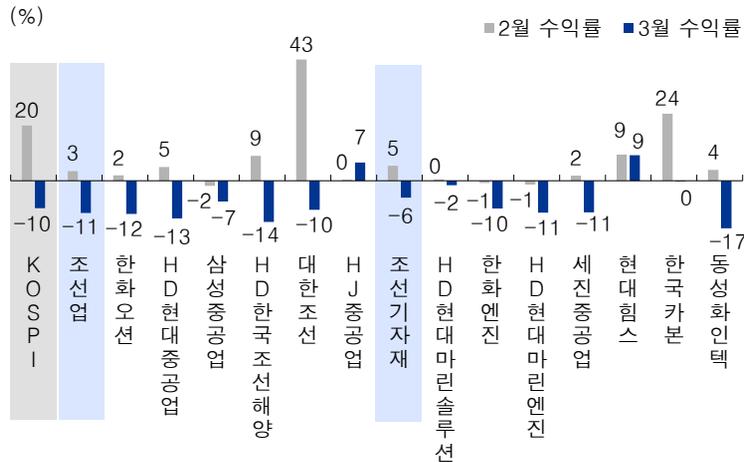
- 하이테크 사업부는 P5 착공 모멘텀까지 겹치며 매출이 바닥을 통과해 반등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판단
- 동사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 PM을 수주하며, 해외 원전 첫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

# 조선

3월

## 성과 분석

- 3월 조선 업종은 -11.4% 하락, 코스피 수익률을 -1.7%p 하회함. 조선 업종 중 HJ중공업은 가장 빠른 실적 개선 기대감 및 수출 확대 모멘텀으로 업종 내 최고 상승률 기록
- 조선기자재 업종은 -5.9% 하락, 코스피 수익률을 +3.7%p 상회함



주: 2월 수익률은 2.1~2.28, 3월 수익률은 3.1~3.25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3월

## 주요 이슈 & 키워드

### HD한국조선해양 인도에 40억달러 규모 조선소 건설 추진

- 3/15 현지시각 HD현대가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에 약 40억 달러(한화 6조 원)을 투입해 대규모 조선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 인도 정부는 타밀나두, 안드라프라데시,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또는 오디사에 걸쳐 추진되는 3~4개의 조선 클러스터 전체를 합쳐 400만~450만 GT 생산능력을 갖출 계획이었음
- 금번 HD한국조선해양의 신규 설립 예정인 조선사의 생산 능력은 350~400만 GT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인도가 3~4개 조선소에 걸쳐 확보하려 했던 생산능력을 단독으로 갖추게 되는 셈
- 총 프로젝트 비용의 45~47% 수준이 보조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추정됨

# 조선

4월

## 전망 및 투자전략

3월



4월



5월



- **발주:** LNGc 발주 재개. 25년 신규 LNGc 발주는 32척으로 YoY -58% 감소. 미국의 중국 제재 리스크로 해운사들의 발주가 지연되었기 때문. 그러나 11월 미중 무역합의 이후 LNGc 발주 재개 중. 26년에는 100척 수준의 발주 전망
- **모멘텀:** 미국 함정 건조 관련 논의 수준을 넘어 실제 발주, 협력, 투자 등 가시적인 진척 본격화 예상
- **실적:** 22년 수주 물량 완전히 해소, 23~24년 수주 물량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 신조선가지수는 23년초 162.2pt에서 24년 9월 189.9pt까지 17% 상승. 상선 부문에서도 여전히 실적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판단
- **투자전략:** 조선업종 비중확대 의견 견지. 발주, 모멘텀, 실적 모두 2026년에도 견조할 것이라 예상

4월

## Top Picks

### HJ중공업

- **실적:** 4Q25 영업이익 QoQ 772.9% 증가. 24년 수주한 고선가 컨테이너선 매출에 반영되며 신조선 부문 +14.9% OPM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 26~27년 신조선 부문 매출, 수익성 동시 개선 지속 전망
- **모멘텀:** 대형사와 유사하게 미국 진출 가능성 충분하다고 판단. 전략상선단, 군수지원함, 수송/상륙함 분야에서 협력 가능. 추가적으로 이르면 올해 UAE항 고속상륙정 수출 모멘텀 존재

### 동성화인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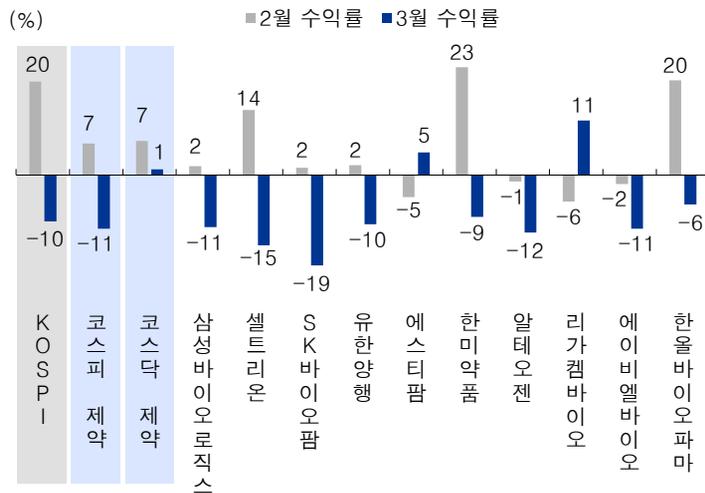
- 2Q26부터 LNGc 대규모 발주 예상. 현재 경쟁사인 한국카본은 방산 모멘텀으로 인해 FY2 PER이 18배 까지 상승, 반면 동사의 FY2 PER은 10배 수준. 밸류에이션 갭 과다하다는 판단
- 4Q25 매출 역성장으로 인한 시장의 과도한 우려 존재, 그러나 3Q25에 물량이 몰리며 일시적인 현상일 뿐, 실적 개선은 지속 될 것으로 예상

# 제약/바이오

3월

## 성과 분석

- 3월 코스피 제약 지수는 -11.2% 하락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1.6%p 하회함. 코스닥 제약 지수는 1.2% 상승하며 코스닥 수익률을 4.0%p 상회함
- 새롭게 출시된 코스닥 액티브 ETF에 바이오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며 코스피 제약 지수 대비 아웃퍼폼했음



주: 2월 수익률은 2.1~2.28, 3월 수익률은 3.1~3.25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3월

## 주요 이슈 & 키워드

### 4월 미국암연구학회(AACR) 초록 제목 공개

- 글로벌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AACR(미국암연구학회)은 4월 17일에서 22일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한국 기준 3월 18일 초록 제목이 공개되면서 주요 발표 기업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번 학회에서 국내 기업 항암 파이프라인 연구 성과가 구두 발표로 선정된 점에 주목. HLB이노베이션 자회사 베리스모테라퓨틱스는 고형암 대상 CAR-T 치료제 임상 1상 중간 데이터 발표 예정
- 알지노믹스는 RNA 편집 플랫폼 기반 항암 유전자 치료제 RZ-001에 대해 간세포암 대상 임상 1b/2a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1차 표준치료제와의 병용요법을 통해 안전성과 일부 유효성 데이터를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

# 제약/바이오

4월

## 전망 및 투자전략

3월



4월



5월



- 4월 AACR 개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학회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AACR 발표 내용을 통해 항암 파이프라인의 데이터가 확인될 예정. 5월에는 유럽간학회인 EASL(5월 27일~30일, 스페인)이 개최될 예정으로 비만 및 MASH(대사이상지방간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
- 3월 25일 알테오젠이 바이오젠과 최대 8,266억 원 규모의 피하주사(SC) 제형 개발 플랫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플랫폼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신규 기술이전 기대감 역시 높아진 상황
- 전반적으로 학회 모멘텀과 실적 시즌, 기술이전 기대감이 맞물리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

4월

## Top Picks

### 한올바이오파마

- 2026년에는 핵심 파이프라인 '아이메로프루바트(IMVT-1402)'의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과 만성 피부질환인 피부 홍반 루푸스의 임상 주요 데이터 발표 기대. 해당 물질임상 효능을 처음으로 직접 입증하는 결과로, 신약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
- 1세대 FcRn 억제제 바토클리맵의 갑상선안병증 임상 3상 결과를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 해당 임상 데이터 공개 이후 파트너사의 바토클리맵 개발 전략이 구체화될 전망

### 한미약품

- 파트너사 MSD가 대사이상지방간염(MASH) 치료제 후보물질 에피노페그듀타이드에 대해 올해 상반기 학회를 통한 글로벌 2b상 데이터 발표를 예고한 만큼, EASL에서의 발표 기대감이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명	담당자	담당자(배우자) 보유여부			1%이상 보유여부	유가증권 발행관련	계열사 관계여부	공개매수 사무취급	IPO	회사채 지급보증	중대한 이해관계	M&A 관련
		수량	취득가	취득일								
해당 사항 없음												

투자의견 안내 (투자기간 12개월)

종목 투자의견 (절대수익률 기준)			
매수 15% 이상	Trading Buy (중립) 0%~15%	중립 -15%~0%	축소 -15% 이상 하락
업종 투자의견 (상대수익률 기준)			
비중확대 +10% ~	중립 -10% ~ +10%	비중축소 ~ -10%	

투자등급 통계 (2025.01.01~2025.12.31)

투자등급 구분	건수	비율(%)
매수	140	92.1
Trading Buy (중립)	9	5.9
중립	3	2
매도	0	0

# MEMO



# MEMO





# IBKS Research Center

성명	직급	담당	전화	이메일
용대인	전무(부문장)	총괄	6915-5400	daeinyong@ibks.com
이승훈	상무대우(본부장)	AI/인터넷/게임	6915-5680	dozed@ibks.com

## 투자분석부

변준호	연구위원	Strategy	6915-5670	ymaezono@ibks.com
정용택	수석 Economist	Economy	6915-5701	ytjeong0815@ibks.com
김인식	연구위원	자산배분/ETF	6915-5472	kds4539@ibks.com
정형주	연구위원	채권/크레딧	6915-5654	hj.jeong@ibks.com

## 기간산업분석부

이동욱	연구위원	에너지/소재	6915-5671	treestump@ibks.com
남성현	연구위원	유통·식자재/지주	6915-5672	rockrole@ibks.com
김유혁	연구위원	미디어/엔터/레저	6915-5673	yuhyuk.kim@ibks.com
이현욱	연구원	자동차/2차전지	6915-5659	hwle1125@ibks.com
오지훈	연구원	조선/기계	6915-5662	jihoonoh@ibks.com

## 혁신기업분석부

김운호	연구위원	IT/반도체	6915-5656	unokim88@ibks.com
김태현	연구위원	음식료/유틸리티/통신	6915-5658	kith0923@ibks.com
조경진	연구위원	해외주식	6915-5464	ckjins@ibks.com
조정현	연구원	건설/부동산	6915-5660	controlh@ibks.com

## 코스닥리서치센터

이건재	연구위원	소재·부품·장비/스몰캡	6915-5676	geonjaelee83@ibks.com
정이수	연구위원	제약/바이오	6915-5677	ysjeong306@ibks.com
강민구	연구원	IT/디스플레이/미드·스몰캡	6915-5473	kmg@ibks.com

## “국민과 중소기업에 필요한 참 좋은 IBK투자증권”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6길 11  
대표번호 02-6915-5000  
고객지원부 1588-0030, 1544-0050

IBKS Family Office	02) 536-4070	IBK WM센터 대구	053) 752-3535
영업부	02) 6915-2626	IBK WM센터 광주	062) 382-6611
강남센터	02) 2051-5858	IBK WM센터 일산	031) 904-3450
강남역 금융센터	02) 532-0210	IBK WM센터 판교	031) 724-2630
분당센터	031) 705-3600	IBK WM센터 평촌	031) 476-1020
IBK WM센터 강남센트럴	02) 556-4999	IBK WM센터 천안	041) 569-8130
IBK WM센터 목동	02) 2062-3002	IBK WM센터 부산	051) 741-8810
IBK WM센터 도곡	02) 2057-9300	IBK WM센터 창원	055) 282-1650
IBK WM센터 한남동	02) 796-8500	IBK WM센터 울산	052) 271-3050
IBK WM센터 중계동	02) 948-0270	IBK WM센터 시화공단	031) 498-7900
IBK WM센터 반포자이	02) 3481-6900	IBK WM센터 남동산단	032) 822-6200
IBK WM센터 동부이촌동	02) 798-1030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